지상백고좌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 혜승 대종사

“부처님 말씀대로 살라… 삶이 어렵지 않다”



송암 혜승 대종사는… 1936년 충남 대덕에서 태어나 1951년 논산 개태사로 출가했다. 개태사에서 은사 포산 스님을 만나 스님의 입적 때까지 9년 동안 시봉했다. 오랜 행자 생활 끝에 1956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정영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도봉산 원각사를 일신시켰고, 의정부포교원 정혜사를 창건하며 의정부 불교 중흥을 이끌었다. 의정부 사암연합회장,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 4월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됐으며, 2008년 10월 종단 최고의 지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았다. 현재 양주 연화사에 주석하며 대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가 노란 꽃을 무겁게 달고 있다. 경기도 양주 연화사는 초입에서 일주문까지 깔끔하게 잘 가꿔져 있어 마치 화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양주 연화사 극락보전 앞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다보탑이 있다.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고 있는 다보탑 위의 네 마리 사자상에는 널리 전법을 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양주 불국산 연화사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 혜승 대종사가 회주로 주석하고 있는 도량이다. 주석처에서 친견한 혜승 스님에게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올 겨울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여쭸다.

“아직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 의사가 힘든 일은 못 하게 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봄이 됐으니 나무도 옮겨 심고, 땅에 거름도 주고 조심스레 일을 하고 있어요.”

연화사가 자리잡고 있는 산을 불곡산이라 부르지만, 고려 때까지는 ‘불국산’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불곡산으로 바뀌었지만, 혜승 스님은 ‘불국산’이라 이름한다. 연화사는 부처님 나라(佛國)인 듯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다.

“200종이 넘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곧 목련과 벚꽃, 영산홍이 필 겁니다. 초가을부터는 백일홍이 피어서 상사화와 함께 도량을 장식하면 화엄의 세계가 따로 없어요. 내 꿈은 우리 절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청정한 백화도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화사에 오면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어요.”

스님은 두 해 전에 신품종 백일홍을 200그루 심었는데, 꽃 한송이가 얼굴보다 크다면서 활짝 웃는다. 사찰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다보탑도 세우고, 불자들이 좋아하는 포대화상도 모셔놓았다.

환희심 났던 9년 행자생활

누구보다도 행자생활을 오래 한 혜승 스님에게 ‘오래 시봉하신 포산 스님의 가르침 중 지금까지도 수행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여쭸다.

“저는 일찍 죽음을 경험했어요.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자신을 많이 꾸짖었어요. 17살 때 조카가 스님이 되어 잠시 집에 왔는데 아는 것도 많고 참 좋아보였습니다. 조카를 따라 논산 개태사의 포산 스님 회상으로 출가를 했지요. 그때는 무엇을 해도 신심이 나서 기쁘기만 했어요. 그저 환희심만 났습니다.”

포산 스님의 시봉을 들거나, 심부름을 할 때면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신바람 나게 일했어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바로 자기 복을 짓는 일인데 얼마나 좋습니까”라는 스님의 말씀에 ‘복을 짓는다’는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대선객인 포산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공부였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바쳐 노스님을 시봉하는 것이 부처님 공부라고 생각하고 ‘계를 받아라’는 말씀도 듣지 않고 포산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스스로 행자생활을 9년이나 했어요.”

세상 변해도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인연 잘 지으면 잘 살고 행복할 것이고

계행 잘 지키면 두려울 것 없고 행복해

아침저녁으로 3분만 할애해 자신을 보라

아침 3분동안 하루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저녁 3분동안 염불하며 하루를 반성하길

사람들이 질문하면 포산 스님은 막힘없이 답을 했는데, 어린 행자는 스님의 법문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겼다.

‘중생은 번뇌로 인해 업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받게 돼 생사가 거듭되는 미혹 세계를 떠나지 못한다. 번뇌를 끊어 번뇌가 없는 데에 이르는 것을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문답을 옆에서 들으면서 혜승 스님은 공부도 하고 싶고 좌선도 하고 싶었다. 모두 잠든 밤에 냉골이 흐르는 방에서 홀로 경전을 봤다. 포산 스님이 장기로 출타하실 때는 좌선을 했다. 좌선을 하면서 며칠씩 먹는 것도 잊은 채 공부에 들어갔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채 7일 용맹정진도 했다. 몸을 너무 혹사한 탓으로 폐결핵에 걸렸다. 당시를 회상한 혜승 스님은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 이때가 제일 신심나게 살았다”면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스님은 개태사를 떠나 꿈에 그리던 해인사 백련암으로 갔다. 여기에서 정영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폐병이 있으니 한 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남해 보리암으로 부산 대각사, 범어사 등 여러 절을 떠돌았다. 그때 혜승 스님은 ‘몇 달을 머물더라도 아침저녁 예불에 빠지지 않고, 도량을 청소하고 닦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어떤 이는 혜승 스님을 두고 ‘불청병객(不請病客)으로 남한 일대를 방황하던 투병객이 드디어 방황하는 신도들을 한데 모아 의정부 불교를 부흥시킨 포교사’라고 말한다.

의정부 불교 일으킨 ‘포교의 달인’

혜승 스님은 ‘포교스님’으로 통한다. 도봉산 원각사를 일신시켰고, 의정부포교원 정혜사를 창건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한 포교원은 전국의 소도시에서 최고의 포교당으로 꼽힐 정도로 잘 지었다. 불교가 열악한 의정부에 포교당을 짓고 신도회 법회, 어린이 법회, 중고등학생 법회, 청년회 법회, 거사회 법회, 군인 법회, 운불연 법회 등 여러 법회를 만들었다. 유치원을 운영하며 새싹 포교에 힘을 쏟고, 군포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의정부포교원이 자리를 잡자, 혜승 스님은 노인복지로 눈을 돌렸다. 양주에 부지를 마련해 연화사를 건립하고, 연화원을 지어 무연고 노인들을 모셨다. 혜승 스님은 ‘노인들이 불자로 착실히 신행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아미타불 염불 소리를 들으면서 부처님 품속에서 편안하게 눈감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은 열망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양로원과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절에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도 첫째는 꽃을 보고 행복해하는 노인들을 위함이었다.

양주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개설해 시민들이 불교교양과 함께 신행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대학교수를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올 음력 4월부터는 초하루와 보름에 신도들에게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를 물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초발심자경문〉이라고 했어요.”

13면에 계속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 출발일 6월 12일
■ 동참금 145만원 (상시 출발 가능 / 출발일 문의)

보현도량 아미산+구채구+낙산대불 5박6일
■ 출발일 6월 16일 ■ 동참금 175만원

지장도량 구화산+황산 4박5일
■ 출발일 6월 10일 집중모객
■ 동참금 145만원

“추천 상품”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3박5일
■ 출발일 6월 11일 ■ 동참금 180만원

“BEST 상품 상시 모객” 민족의 영산 백두산 3박4일 / 4박5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9박11일 (목/토 출발가능)
■ 인도+네팔 (아잔타/엘로라석굴/산치대탑/7대성지) 13박15일
■ 남방불교의 꽃 스리랑카 4박6일 / 6박8일

상담문의 환영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